

결혼과 여성의 지위 - '섬섬귀신' 들의 귀곡성

섬섬하고 서러운 것 유난히 많은 한국의 어머니들

여자들이 느낀 대로 말을 하기 시작한 역사도 얼마되지 않았다. 요즘 인기 TV 드라마인 <엄마의 바다>에 등장하는 철부지 막내딸 '경서(고소영 분)'의 역할은 느낀대로 말하지 못하면 살 수 없는 현대 여성상의 일면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하고픈 말 다하는 여자 <엄마의 바다>의 경서

결혼날짜를 잡아놓은 경서는 남편이 될 상규에게 '오늘 밤 다른 남자 친구와 술마시고 춤췄는데 즐겁더라'고 당당히 말하기도 하며, 시어머니가 하는 사소한 지시에 대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기 하고픈대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성격의 경서는 결혼준비가 진행되면서 결혼이란 상황은 바로 자기 하고픈대로 살지 못하는 조건임을 깨닫게 된다. 경서는 당장 결혼을 취소한다. 친정 어머니나 시부모나 아무도 그의 과혼 선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지만 경서라는 인물형에게는 자기 하고픈 대로 하고 사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나는 밤새도록 춤을 추고 싶으면 춤을 춰야 돼. 그런데 결혼하면 그렇게 못할 것 아니야?" 경서가 결혼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상규는 답한다. "내가 봐 줄게. 너 하고픈 대로 해. 밤새도록 춤을 추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내가 봐 줄게." 남편감으로서 더이상의 반응은 없을 것처럼 보이는 바보스러워까지 보이는 대답이다. 그러나 경서의 대답은 한 술 더 뜬다. "나는 그게 싫어, 왜 누가 날 봐 줘야 돼. 난 그냥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좋아." 둘의 대화는 여기서 끝난다. 앞으로 드러마가 어떤 줄거리를 따라갈지 모르지만 경서라는 인물은 인내, 침묵을 높은 가치로 두고 있는 한국여성들의 역사에 드디어 하고픈 말을 참을 수 없는 여성이 등장했음을 알려준다.

반어법으로 남은 여성 억압의 역사

여성 억압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것이 여성들의 말의 역사이기도 했다. 우리사회의 문화 전통 자체가 직설적인 화법을 지양해 왔지만, 여성들의 언어에서는 화자의 주제



적인 욕구표현 자체가 금기로 여겨져 왔다. 여성들의 언어에서는 관계지향적이고 이타적인 말들이 발달해 있다. 누구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챙겨줘야 하고 눈치를 보아야 할 사람의 심기가 어떻고... 하는 정보들이 여성의 머리 속을 꽉 채우고 있고 말하고 듣는 말도 주로 이런 종류의 말들이다. 내 생각이 이렇다거나,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거나, 내가 무엇이 되겠다거나 하는 주어의 생각과 신념, 감정을 말하는 언어란 여성들에게 무척 생소한 말들이다.

지금에도 나이는 어른들의 언어습관으로 남아 있는 반어법은 그런 흔적을 보여주고 있다. 속으로는 무척 원하면서도 막상 자식들이 권할 때는 필요없다고 말하고, 그 말대로 권하지도 않는 상황이면 이내 섬섬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욕구를 느낀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언어습관을 배우고 자란 젊은 세대들과 말따로 마음 따로인 언어법이 익숙한 기성세대들은 제각기 다른 표현법으로 인해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다.

화법 다른 세대의 상처 주고받기

철순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신혼부부 집에서 여름 휴가를 앞두고 일어났던 일이다. 신혼부부는 여름 휴가 계획을 짜면서 둘만의 여행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있을 때였다. 혼자 계실 시어머니가 마음에 좀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동행할 생각은 없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딸네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겠다고 여러 번 강조해 왔었다. 휴가 여행을 떠나기로 한 전날 밤, 신혼부부는 '예의상' 시어머니에게 자기네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고 권해 보았다. 첫번째 거절하고 두번째 거절하던 시어머니는 세번째의 권유에 흔쾌히 승락을 하며 아들내이를 따라 나갔다. 나중에 알고보니 시어머니가 딸네 가족을 따라가겠다고 말을 해왔던 건 꼭 그렇게 하고 싶어서라기 보다는 아들네 따라가고 싶어하는 체신머리 없는 시어머니로 비치는 게 싫어서였다고 한다. 만약 이 신혼부부가 둘이서만 여행을 떠났거나 동행권유를 하더라도 한두번 해보다가 어머니의 거절 대답을 진짜 대답으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번 안중에서 섬섬한 시어머니들이 온 말도 마음 담은 며느리

또 한 어머니는 큰며느리가 둘째 아이를 낳자 산간호를 해주기 위해 아들집에서 한 달간 머물렀다. 큰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산간호 해주시기 위해 우리집에 오시는 걸 계기로 합쳐서 살자'고 말했다. 물론 시어머니로서는 무척 반갑고 고마운 제안이었다. 그러나 이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엉뚱한 대답이 나왔다. "난 교회를 다녀야 하는데 이 동네로 오면 내가 다니던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는 등의 몇가지 이유가 있었다. 며느리는 '그래도 함께 살아야 한다면 지금 합치면 서로가 좋지 않겠냐'고 재차 권했다. 시어머니는 다시 강력하게 반대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정말 지금 함께

지내기 싫어하시는가 보다고 생각해 더 이상 권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동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한달간 산후조리를 돌봐주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때부터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내이 등 집안 식구들에게 '큰며느리한테 구박받고 왔다'라는 내용의 하소연을 털어 놓았다. 집안 식구들이 나서서 알아보니 이 어머니의 '구박받았다'는 얘기는 큰 며느리가 "세번을 권하지 않고서 두번까지 권하고 말았다"는 데서 온 섬섬함이 사소한 일도 '구박'으로 느끼게 한 것이었다.

이 시어머니의 하소연이 여러 입을 통해서 큰 며느리에게로 전해졌을 때 며느리 역시 크게 상심했다. 첫째는 자기의 진심이 와전된 것이 화가 났고, 둘째는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는 것이 '신경질'이 났으며 셋째는 자기가 큰며느리 인데도 다른 가족을 통해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이 '약이 올랐던' 것이다. 그래서 이 며느리의 마음은 굳게 닫혀버렸다. 마음 좋은 사람이라는 평을 듣는 며느리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시부모가 정말 밥도 못 끓여 먹을 정도로 연로하지 않는 이상 내가 먼저 합치자는 얘기는 안할 것"이라는 결심을 해두었다.

안통이면 섬섬하고 서러운 한국의 어머니들

한국의 어머니들은 유난히 '섬섬한' 게 많고 '서러운' 게 많다.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서인지 주눅들어서 살아서인지, '나'를 표현하는 데에

서툴기만 한 여성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드러내서 요구하지 못한다. 겨우 개발해낸 방법이 '어른이 말로 하기 전에 알아서 해주는' 방법이다. 자기들은 어른을 이런 방법으로 모셔야 했고, 이제는 2세들에게서 그런 방식으로 보상받을 차례가 되었다.

그러나 이 어머니들과 2세대들간에는 표현법의 세대차가 엄청난 폭의 강줄기를 이루어 막아서 버린 것이다. 헌신적인 생활, 밀알처럼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여자 삶의 규범이었던 시절에 여자들이 자기의 욕구를 말하는 언어를 갖지 않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사회가 정당화해주는 욕구, 특히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권리에는 굉장한 집착을 보인다. 여전히 욕구의 수위는 높는데 이를 표현할 언어를 잃고, 이들의 욕구를 보상해 주어야 할 2세대이 어머니들의 진짜 말, 소리나지 않는 말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로 성장해오고 있는 현실이다.

노인들의 복잡한 섬법에 찌꺼기 남기는 젊은 세대들

섬섬함과 서러움은 자기 존재가 정당하게 인정되지 못하는 환경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정서적 특성이자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자기를 주장했다가는 큰 봉변이나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위치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특성인 것이다. 섬섬함, 서러움, 한 등등, 한국여성을 특징짓는 미묘한 감정어들은 모두 그런 억압당한 자들의 존재 위치를 나타내는 지형도가 들어 있다.

성장기에 이런 억압 속에서 자라지 않아도 되는 행운을 가진 젊은 여성들의 정서와 화법이 '섬섬지심'에서 벗어나게 된 것도 이런 이유이다. 어릴수록 할 말 다하는 데 거리낌이 없고 자유롭게 자랐을수록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여성들의 정서세계에는 남으로 인한 상처를 받는 빈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있다. 이들에게 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말하거나 하고 싶지 않은데도 긍정적인 대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안하게 하는 등의 복잡한 섬법에 취약하다. 복잡한 섬법에 따른 말을 알아듣는 청취력도 약하거나 그 섬법을 해독하더라도 하고 싶지 않는 것이다. '하고픈 말을 하면 되지 엉뚱한 말을 하고서 나중에 댄소린인가?' 이런 시각으로 노인네들을 바라보는 젊은 여성들에게 노인네들의 이런 심리가 피곤하고 구속으로 다가오며 따라서 멀리하고 싶다.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한다.

점심때가 되어서 아들집에 갔다가 점심상을 차릴까 묻는 며느리에게 '생각없다'고 말한 시어머니가 두번만 권하는 며느리 덕에 점심을 끓였다. 집에 돌아온 시어머니는 세번을 권하지 않았던 며느리가 섬섬하고 서러웠고 이 말을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 며느리 역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아서 기분 나쁘고 마음이 더 멀어져 갔다.

서로 다른 세대의 화법을 배워두는 것이 공존의 지혜로 필요한 때다. 가족문화의 과도기에서 '섬섬귀신'들의 '귀곡성'은 점차 약해지겠지만 꽤나 오랫동안 이어져갈 것 같다. <김효선 기자>

'나의 결혼이야기'를 써 봅시다

독자 여러분의 '결혼' 편지를 기다립니다.

결혼은 여성에게 많은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보고 듣고 생각하게 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가족이나 집안 자랑으로 일관하는 글은 사양합니다. 여성이 결혼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인 '나'의 관점에서 글을 써보십시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새롭게 나타날 것입니다.

다.

가장 많은 여성들이 공감대로 체험하고 살아가는 결혼, 그러나 정작 결혼에 대한 진지한 생각들은 모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주제로 자기성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실타래를 풀어나갑니다. 이 글은 개인의 인생기록일 뿐 아니라 우리시대 여성사의 기록으로 남게 될 겁니다.

글 보낼 곳: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67-33 남성빌딩 여성신문사
결혼이야기 담당자
(우편번호: 137-070)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